

사물과 이미지의 상관성 탐구 시도

글 김 찬 동 전시기획자 · 본원 총괄협력팀장



박현기의 〈무제〉,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모니터, 돌, 1978

1970년대 중반 한국 화단은 소위 ‘단색조 회화’의 열풍이 풍미하던 시절이었다.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인식과 신체성, 장소성 등 서구의 현상학적 개념들이 동양적 사유와 접맥되어 이러한 열풍이 형성되었다. 이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나타난 다양한 실험미술들로부터 비롯된 정제된 미학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왕성하게 탐구되던 조형실험에는 사물로서의 예술작품, 개념적 행위, 입체작업,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다.

박현기는 국내에서 활동한 작가로서는 최초로 비디오 아트를 선보인 선구적 작가이다. 그는 비디오가 가지는 영상 기록으로서의 매체적 특성을 설치미술과 연결시키며 이에 개념적 요소를 결부시킨 독특한 작업을 발표하였다. 그의 1978년 작 〈무제〉는 그의 초기작 중 대표작으로서, 자연석을 탐처럼 쌓는 구조물의 한 요소로 비디오 모니터를 사용하되 모니터에서는 모니터의 아래층과 위층의 돌들 사이에 놓여진 돌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실제의 돌과 돌의 영상을 담은 비디오 모니터가 하나의 자연스런 돌탑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비디오 설치작업이다. 단순한 사실적 영상기록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성이 강조된 비디오 작업으로 실재와 영상을 하나의 기호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사물과 이미지의 상관성을 탐구하는 시도였다. 또한 그는 그간 다양하게 실험되어 오던 설치, 입체작업들과 비디오 아트를 연결시킴으로써 후일 국내 화단의 젊은 작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매체실험과 설치, 개념작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조형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

예술마을

이 지면은 우리 원의
주요 지원사업과 기획사업 및 예술계의 정보를
알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마로니에 알림 >>

6월의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공연 하이라이트

6월의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전시 하이라이트

이달의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2

6월의 공연 · 전시 · 문화행사 안내 >>

새로 나온 책 · 새로 나온 음반 >>

문화인물 >>

한국 현대문학의 맥 이어온 지조의 시인 조지훈

지역문화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

인천 · 경인 · 강원 · 대전 · 충청 ·

대구/경북 · 경남 · 부산 · 전남 · 전북 · 제주

金子(Jin Zi), 중국에서 그녀가 온다

중국의 10대 지방희곡연극단의 하나이며 서남지구에서 제일 큰 전문예술연기단체인 중경(重慶)시 시천 정통 연극단(市川劇院)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초청으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중국 문련(文聯)과의 정기 교류를 기념하고 올해 한·중 수교 1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초청 공연을 갖게 된 것이다.

화려한 수상경력 가진 중국 전통극 〈金子〉를 서울에서

〈金子(금자)〉는 뛰어난 작가에 뛰어난 극단, 그리고 배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현대 중국 희곡계의 거두이자 세계 희곡사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초우위(曹禺)의 〈원야(原野)〉를 원전으로 하여, 500년 전통의 중국 사천(四川)지방 교유의 전통극인 천극(川劇)으로 개편한 것이다. 작가 초우위는 1934년 처녀작인 희곡 〈뇌우(雷雨)〉를 시작으로 1936년 〈일출(日出)〉, 1937년 〈원야〉를 발표함으로써 중국 근대극 창시자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중경시천극원은 1951년 창립하여 중국 전통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대극으로 재편, 새로운 현대적 레퍼토리 창작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온 중국 최고의 극단으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단체이다. 〈金子〉는 중경시천극원의 대표작이다.

〈金子〉는 전통극 레퍼토리로는 보기 드문 대중적인 인기와 성공을 누리고 있으며, 작품성과 예술성 역시 탁월하여 (중국)건국 50주년 전국우수연극작품 축하공연에 초청되는 등 제1회와 제6회 중국예술제, 제1회와 제2회 중국희극제, 제11회 아시아운동대회예술



‘찐찐’ 역의 선태메이

金子

연출 및 전국희곡순회공연, 제1회 중국 쓰촨전통연극제, 상하이 국제예술제 등에 참가하여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중국문화대상, 문화연극작품상, 문화감독상, 문화음악창작상, 문화연기상, 중국예술제 대상, 중국초우위희곡상, 중국희곡문학상 금상, 중국 쓰촨전통연극예술금상, 상하이 백옥란상, 제7회 중국희곡제 우수연극본상과 중국희곡학회상 등 많은 대상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 쩐쯔(금자)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중국 농촌 부녀로, 악한 시어머니에 선량하나 나약한 남편, 복수하러 온 옛 애인 등 비극적인 사랑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반항적인 성격을 가진 쩐쯔는 당시의 사회적 울타리와 여성으로서 처한 억압적 굴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사랑과 포용으로 인간들 사이의 화해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강인한 여성상을 그려낸다.

뛰어난 원작, 참신한 개작, 감동적인 연기가 빛어내는 무대



‘여성주의’라는 주제가 곳곳에 스며 있는 개편을 통해 전통의 보다 현대적인 수용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총평을 받고 있으며, 사천 민가(民歌)와 표현수법의 활용 역시 뛰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원작의 처우후(仇虎/男)로부터 쩐쯔(金子/女)로 바뀐 것은 단순히 인물 중심의 변화가 아니다. 원작은 사랑, 증오, 복수를 중심으로 ‘처우후’가 2대의 원한을 갚으려고 싸우는 인생을 표현했는데 ‘쩐쯔’는 비록 그 기본 줄거리는 보류하였으나 불공평한 사랑과 증오에 부딪혔을 때 복수에 치우치면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했으며 쩐쯔의 아름다운 마음, 피와 눈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포용과 이해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과 인간 내면의 깊이를 연기해야 하는 쩐쯔 역의 선택메이(沈鐵梅)는 중경시천극원을 대표하는 국가 1급 연기자로서 각종



연극·예술제에서 수상했으며, 중경연극협회 부주석, 충칭정치협회 위원 등 행정업무와 예술창작 활동 모두에 충실한 진정한 예술인이라 할 수 있다. 〈金子〉는 선테메이가 접한 첫번째 현대연극으로서 전통연극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극중 주인공 찰스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기해야 하고 주인공의 성격적 특징은 어떻게 살려야 할지 그녀는 세심한 분석을 거듭했다. 그녀가 연기하는 정열적이고 화끈한 성격의 찰스의 모습이 사뭇 기대된다.

처우후 역의 쑤우용(趙勇)은 국가 2급 연기자로, 중경시천극원에서 연기자로 있다. 그는 기초실력이 견고하고, 특히 시천연극의 어릿광대역 연기 예술의 연구에 몰두했다. 이러한 면들이 그의 연극에서 동작과 표정 연기, 인물의 내면세계를 잘 묘사해 뚜렷한 무대형상을 부각해 주고 있다. ‘청묘상’ ‘제7회 중국희극연기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수상경력 등이 뒷받침해 주는 연기자들 이어서 〈金子〉를 보는 내내 무대 안으로 빨려드는 환상을 느낄 것이다.

뛰어난 원작에 참신한 개작, 그리고 사람을 감

동시키는 연기의 예술적 매력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진다.

〈金子〉의 공연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공연 첫날인 6월 4일은 중국 대 코스타리카(오후 3시 30분, 광주), 한국 대 폴란드(오후 8시 30분, 부산)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다. 공연(오후 6시)을 전후로 열리는 이번 경기를 위해 예술극장 로비와 대극장에서는 특별 스크린을 준비해 공연과 축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공연기간 : 2002년 6월 4~6일
- 공연시간 : 6월 4일(오후 6시), 5일(오후 7시 30분), 6일(오후 3시, 6시)
- 공연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 문의전화 : 02-760-4639, 4640

우리 정서의 원형을 찾아서 〈성창경展〉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는 6월 7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성창경展〉이 제2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門)’ 시리즈로서 열린 성창경의 작품세계는 전통문을 통한 우리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적 정서의 원형을 찾아 폐가를 뒤지면서 찾아낸 문 창살이나 쇠고리는 오브제로서 한국적인 매재를 전용한 것이다.

일종의 폐품의 집합이기도 한 이들 작품은 이미 ‘문’이라는 기능과 용도를 떠나 있다. 그것들이 공간에 중첩적으로 펼쳐지면서 화음을 자아낸다. 평면 사각의 2중적 3중적 중첩 위에 인위적으로 색채의 번짐 효과를 가하고 그 비정형한 잔형과 더불어 릴리프적으로 배치된 문 창살과 소멸된 흔적을 남긴 한지의 유연적인 형태, 쇠고리 등은 조형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면 한지의 유연성과 강골한 쇠고리의 첨예한 대비는 다소 이완된 관계로서 이질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물질적인 상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문 창살의 중성적인 촉감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우리의 ‘문’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문의 구조처럼 하나의 약한 나무창살이 서로 얹혀 있어서 하나의 강한 문이 되듯이 개개인보다는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을 중요시하는 오래된 우리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 전시기간 : 2002년 6월 7~17일
- 전시장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제2전시실)

〈문 2001-III〉

▶이달의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2002. 5. 15~6. 15)

분 야	지 원 대 상				
	단체명(대표자)	연락처	사업명	일 시	장 소
문학	한국시인작가협의회(박재천)	02-764-5057	웹진 『포엠월드』 발간	연중 계속	www.poemworld.co.kr
	포엠토피아(김재홍)	02-744-0220	현대시 공모 및 사이버청소년 문학상 시상	3. 6~5. 31	www.poemtopia.co.kr
	우리말우리글바로쓰기추진위원회(안병희)	02-3704-9420	인터넷 '한글문화방' 개설 운영	4. 1~12. 31	www.mct.go.kr
	재단법인한글학회(허웅)	02-738-2236	아름다운 우리말 상호 선정	3. 1~12. 31	서울 등
	재단법인한글학회(허웅)	02-738-2236	우리 말글 지킴이 선정	3. 1~10. 30	서울
	민족문학작가회(현기영)	02-313-1486	『내일을 여는 작가』 여름호 발간	4. 1~6. 30	도서출판작가
	국제펜클럽한국본부(성기조)	02-782-1337	『펜문학』 여름호 발간	4. 1~6. 30	한국문화사
	한국수필가협회(조경희)	02-771-3492	『한국수필』 5. 6월호 발간	5. 1~6. 30	선우미디어
	한국어세계화재단(이익섭)	02-669-9785	『새국어소식』 5월호 발간	5. 1~5. 3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문인협회(신세훈)	02-744-8046	『월간문학』 5월호 발간	5. 1~5. 31	월간문학사
	한국소설가협회(정을병)	02-703-9837	『한국소설』 5월호 발간	5. 1~5. 31	협회사무국
	정지용기념사업회(이근배)	02-723-9798	정지용 탄생 100주년 기념 서울지용제(제15회)	5. 6~5. 8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박종국)	02-969-8851	세종의 날 기념 제27회 전국 초·중·고 글짓기대회 시상식	5. 17	홍릉 세종대왕기념관 강당
	한국여성문학인회(한말숙)	02-362-3687	제36회 전국주부백일장 및 외국인과 함께 하는 시상송	6. 3	홍사단 강당
미술	한국문인협회(신세훈)	02-744-8046	2002년 마로니에청소년백일장	5. 26	마로니에공원
	구로노동자문화회(김미순)	02-869-2583	구로노동자문화회 정기문학강좌	5. 17~5. 26	구로노동자문화회
	경남문학관(전문수)	055-547-8277	기획전시회-경남문학단체·동인회 자료전	4. 2~4. 30	경남문학관
	권순평	02-814-4678	기획전 <사진의 권력>	6. 5~6. 11	가나아트갤러리 사진마당
	유진상	061-231-6202	<리얼인터넷> : 미술인터넷방송전시	6. 1~6. 30	일민미술관
	일민문화재단	02-2020-2055	문법강 개인전	6. 12~8. 18	일민미술관
	한국서예협회	02-682-2967	제14회 대한민국서예대전	5. 14~5. 27	예술의전당 서예관
	전지연	031-286-5253	전지연 개인전	5. 15~5. 21	인사갤러리
	민예총대전양지부미술위원회(조형진)	043-646-8923	함께 하는 미술열차	5. 1~11. 30	옥천, 보은, 영동군 등
	장애인그림공간 소울을(최진섭)	031-443-9681	제8회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	5. 1~5. 31	안양문화회관, 군포시민회관
	국단황토레퍼토리시스템(박병도)	063-226-1728	마당극 <춘풍의 처> 순회공연	5. 11~5. 19	전북도 내 3개 시군
	공연기획모아(남기웅)	02-762-0010	<죽은 시인의 사회> 공연	5. 2~5. 31	군포 등 4곳
	인형극단누렁스(서해자)	043-224-4498	<풀냄새 피어나는> 벽지초등학교 순회공연	5. 10~5. 20	충북 내 벽지초등학교
	국단수레무대(김태웅)	02-319-2518	<어린이 왕자> 구민회관순회 공연	5. 16~6. 29	서울지역구민회관 외 5개 공연장
연극	국단창파(채승훈)	02-823-2582	<첼로와 계란>	5. 14~5. 26	학전분부 소극장
	축제국단무천(김아라)	02-745-6078	<새가 되어 날아간 두 남자> 정기공연	6. 1~6. 16	학전그린 소극장
	연협진주지부(모영갑)	055-755-9111	제3회 남도연극제(영호남연극제)	6. 7~6. 11	경남문화회관 외 2개처
	국단작은세상(권영만)	051-867-0629	장애인특수학교교무로방문공연-어린이연극 <빨간 도깨비...>	6. 1~6. 30	부산시내 9개 장애인특수학교
	한국인형극협회(서인수)	02-420-0378	제6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인형극축제	6. 10~6. 30	전국
	국단Art3시어터(김경태)	011-373-1070	스위스조각국제연극제 초청 <生> 공연	5. 20~5. 26	스위스 로잔
	국단물리(한태숙)	02-765-5475	폴란드콘탁페스티벌 초청 <레이디 맥베스> 공연	5. 25~5. 32	폴란드 토론
	무용	02-521-4602	최대레사무용단의 춤과 테크놀로지 공연 <움직임과 기호>	5. 14~5. 16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웃는돌(홍신자)	031-675-0661	제8회 안성죽산예술제	6. 6~6. 9	죽산 웃는돌
	서울교사관악합주단(백준기)	02-742-1321	제35회 정기연주회	5. 18	리틀엔젤스예술회관
	한국국민악회(김형주)	02-786-5595	제18회 작곡발표회	6. 7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농악보존협회(임동권)	031-285-9981	제4회 농악명인경연대회	5. 25~5. 26	한국민속촌아외공연장
	풍물놀이패굴림(김태훈)	062-227-0474	제5회 전라좌도굿발표회	6. 1	광주상무지구조각공원
	국악진흥회(이명규)	02-580-3143	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	6. 1~12. 31	해외동포집지역
문화 일반	Uart Center(임옥삼)	02-3216-1877	당신도예술가	3. 31~10. 27(일)	인사동, 여의도공원, 윤현궁 등
	지하철공연문화협의회(류장복)	02-534-5493	도시철도5678 문화한마당	1. 5~12. 28(토)	이수역, 사당역 등
	공연예술기획이일공(윤성진)	02-766-5210	2002 지하철예술무대	3. 9~6. 30	지하철 1~4호선
	민예총원주지부(서용은)	033-732-2733	원주시립박물관 주말상설마당	4. 1~11. 30(토)	원주시립박물관 놀이마당
	할예술가기술(류장복)	011-9784-6073	<철암그림> 전시	1. 1~12. 30	철암동 태백석탄박물관
	수정노인복지회관(변선희)	031-731-3393	문예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	1. 1~12. 31	경기수정노인복지회관
	독립예술제집행위원회(이규석)	02-325-8150	독립예술제 2002	5. 25~6. 15	홍대 일원 공연·전시장
	쿼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박희재)	02-745-7942	무지개 2002-쿼어문화축제	6. 4~6. 8	이태원 일원
	송혜승	016-729-6221	<참고문헌> 전시	6. 21~7. 12	홍대 아티뉴스서점
다원 예술					

아시아 젊은 예술가들의 축제의 장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2

Brave New Asian fringe Festival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젊은 문화예술가들이 1998년 시작한 독립예술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200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마포구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홍대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프린지(Fringe)란, 사전적 의미는 변방 혹은 주변부를 뜻하며, 문화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젊은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축제공동체를 뜻한다.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인류의 정서적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영국에서 『에든버러 국제예술제』가 창설되었다. 이때 에든버러를 찾아온 초청받지 못한 8개 젊은 극단이 축제장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공연을 치러냈고, 그후 이들의 취지에 동감하는 예술인들이 동참하여 생긴 것이다.

1998년 '한국적 프린지의 실험과 모색'을 모토로 개최된 독립예술제가 국내외의 젊고 미래지향적인 예술가들이 동참하는 '아시아의 프린지 페스티벌'로 거듭났다. 이번 페스티벌의 슬로건 'On the Road'는 축제에서 만나게 될 아시아의 젊은 예술가들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낸 것이다.

록, 테크노, 전위음악 등을 선보이는 음악축제 '고성방가'와 다양한 미술장르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미술·전시축제 '내부공사', 연극·무용·퍼포먼스 등 3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무대예술제 '이구동성', 22일간 섭없이 달리는 거리예술제 '중구난방' 부문으로 나뉘어 젊음의 열기를 더할 것이다. 또한 해외공연과 독립문화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을 위한 학술행사, 강연회 및 워크숍 등이 이뤄진다.

이번 페스티벌의 특징은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아시아 연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예술창조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서울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문화예술이 젊음으로 하나되어 더욱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무대를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2'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02-325-8150)로 문의하면 된다.



'이구동성'에 참가하는 서승아(왼쪽), 동시대(오른쪽)

6 월의 공연 · 전시 · 문화행사 안내

~3 한국섬유비엔날레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1, 2전시실
 ~6 이케다 다이스쿠 사진전 <자연과의 대화> / 예술의전당 미술관 4, 5전시실
 ~9 제13회 구성조각대전 / 예술의전당 미술관 옥외광장
 ~16 여우가 뭐하니? 동산에 꽃피면 나하고 놀자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30 월드컵 개최 기념 관측전 <박주거리를 아시나요?> / 현대예술관 갤러리

김윤실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중대음대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안양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정수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브람스 리더 이벤트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02 강미희 솔로댄스 퍼포먼스 <미아>(~2)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제35회 한국구상조각대전(~9) / 예술의전당 미술관 6전시실
 한 · 중 회화 2002 새로운 표정전(~30) / 예술의전당 미술관 1전시실
 켈트전(~9) /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전시실
 20세기 이탈리아 유명작가 스포츠화대전(~9) /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1전시실
 토요상설 국악공연 <황중(黃鍾)> / 국립국악원 우연당
 콰르텟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새로운 무용수를 찾아서(~2)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극단 천지인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9) / 학전블루 소극장
 월드컴퍼니예술축전 <토요상설 국악> / 경기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김덕수의 다이내믹 코리아(~30) / 한전아트센터
 2002 월드컵기념 한 · 일합작 신창극 <현해탄에 핀 매화>(~2) / 광주문화회관

돌아온 제키 <이제진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Grieg 가곡의 밤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화음엘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방성주 클라리넷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국립무용단 <춤 · 춘향>(~5)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여인의 유혹>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울공연예술제 무용경연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월드컵과 함께하는 경기인의 소리 / 경기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테너 임정근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청문상악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윤경희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한양동문 기아금융재단 제2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화성국제연극제 <그레이메이디 칸타타#7(미국)>(~4) / 경기도문화회관 소공연장

피아노 듀오 이벤트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서울심포니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인성회 소프라노 독창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제2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문인화)(~16) / 예술의전당 서예관
 화요상설 국악공연 <김수희 가이름 독주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국제민속축전 / 국립극장 하늘극장
 Cioff / 국립극장 하늘극장
 문예진흥원 초청공연 중국문헌 중경시현극원 <급자>(~6)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전통문화와 페미니즘의 만남 <한국화>(~17)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1전시실
 성창경전 <설치>(~17)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2전시실

환경의 날 행사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서울심포니에타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허태범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궁중연예악 특별공연 <조선시대 복식에 스민 궁중연예악의 미학> / 국립국악원 예약당
 사운드 오브 보이스(~9)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월드컴퍼니예술축전 화성국제연극제 <정약홍프로젝트(한국)>(~6) / 경기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가무악극 <연오랑과 세오녀>(~30) / 정동극장

리더 이벤트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오페라 스타리아리 페스티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안소현 피아노 리사이틀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박숙연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오페라 <전쟁과 평화>(~9)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서울공연예술제 <사물의 왕국>(~9)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가요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한국국악민요제 제18회 작곡발표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살타첼로 2002 대한공연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목관수 오보에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궁중연예악 <왕조의 꿈, 대명서곡>(~11) / 국립국악원 예약당
 청소년공연예술제(~17)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켈트인 이호재 무대40년 공연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23)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민족춤제전 / 서울리틀엔젤스회관

금난새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청소년교향악 제55회 정기공연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나이젤케네디(~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유은정 독창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소프라노 이금옥 독창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레이디 맥베스(~23)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월드컴퍼니예술축전 <도림무용단특별공연>(~10) / 경기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화성국제연극제 <급자(중국)>(~9) / 경기도문화회관 소공연장
 함창 페스티벌 / 경기도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2회 인디애나폴리스 동문음악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신인음악상 동우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한울회전(~16) / 예술의전당 미술관 3전시실
 제37회 한국가독곡 미술인협회전(~16) / 예술의전당 미술관 3전시실
 제10회 Wave Art Fair(~16) / 예술의전당 미술관
 이화조각전(~16) / 예술의전당 미술관 2전시실
 하회별신굿탈놀이 무대공연작품 <까부지 마라 이마노>(~16)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국악퓨전무대 / 경기도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서울시합창단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바리톤 이종석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소리꾼 신영희의 소리인생 50주년기념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뮤직C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신작회곡 페스티벌(~14)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2002 월드컵기념 한 · 일합작 신창극 <현해탄에 핀 매화>(~11) / 대구문화회관

세븐스타갈라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스페인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망신예 초청연주회(~14)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화요상설 국악공연 <김호은의 춤> / 국립국악원 우연당
 자연과 음악의 만남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월드컴퍼니예술축전 <도림팝스특별공연> / 경기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국악 정기공연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신인숙 섬유미술전(~19) /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전시실
 사슴미 대금 독주회 <대화 시리즈> / 국립국악원 우연당
 제2회 전경자 전통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타기 현대미술전 및 타기 사진전(~18)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극단 풍경 <하녀들>(~22) / 학전블루 소극장
 월드컴퍼니예술축전 <정명훈과 7인의 날자들> / 경기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화성국제연극제 <보이책(프랑스)>(~13) / 경기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콩쿠르 본선연주회(~15)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하늘극장 개관축전(~30) / 국립극장 하늘극장
 김선연 · 윤혜연 초청 듀오 연주회 / 문화일보홀 <한전아트홀>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17)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월드컴퍼니예술축전 <김시라의 풀바>(~15) / 경기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청소년음악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진경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5

김성미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토요음악강사회 /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2002 국립국악원 정기공연 (수릿날의 죽음과 변주) (~16) / 국립국악원 예약당
판소리한마당 (소리길 소리사랑) / 국립국악원 우연당
한국음악의 색과 선 (~16)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꾸러기음악회 (피터와 늑대) / 건국대 새천년과 대공연장
2002 월드컵기념 한·일합작 신창곡 (현태탄에 핀 매화) (~16) / KBS 대홀
월드컵문화예술축전 (특별토요상설극악)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제2댄스 페스티벌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16

박지원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현주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주은영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02 판터 페스티벌 (~19)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17

예술성악양상별 제9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부천시립합창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제15회 서예대전 (~23) / 예술의전당 서예관
임동순과 함께하는 음악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8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이승희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말려 2002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이현악 4중주단 3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국립합창단 청소년예술제 (~19)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이탈리아 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7. 1)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1, 2전시실
월드컵문화예술축전 (도립극단특별공연) (~19)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민족춤제전 (~19)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9

비전-세 창단 작곡발표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신조형 수채화전 (~26) / 예술의전당 미술관 4, 5전시실
월드컵 특집 (난파청소년음악회)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고대 가무곡 (바람부는 섬에 꽃향기는 날리고) (~21) / 제일화재 세실극장

20

소프라노 신은미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월드컵문화예술축전 (우리가락한마당)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21

오페라 (메달레중) (~23)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선우지영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연희 · 주혜정 듀오 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나츠 듀이토와 스페인국립무용단 (~23)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한 · 일음악제 (~23)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춤 · 타래 무용단 기획공연 (~22)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댄스퍼펙트 (평론가가 밝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02) (~23)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22

토요상설무대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테너 윤종일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크누아 심포니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로맨틱 콘서트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강숙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창단 20주년 부부성과 듀엣 콘서트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한국여성사라다지인협회 정기전 (~29) / 예술의전당 디자인 미술관 2전시실
제10회 젊은연극제 (~29)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오페라 (메리위도) (~23)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어린이뮤지컬 (백설공주) (~23)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우리소리 향연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꾸러기음악회 (피터와 늑대) /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배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코리아필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3

카로스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베르디아니와 함께하는 여름산책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제10회 젊은 연극제) (~30) / 학전블루 소극장

24

전국장로찬양단 합창제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현근 · 정유라 피아노 듀오의 밤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프라이필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아나첼로비주지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제13회 대한민국 서법예술대전 (~30) / 예술의전당 서예관
열사 류관순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제10회 젊은 연극제) (~30)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월드컵문화예술축전 (도립극단특별공연)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25

남보원 인생 40년 (불우이웃돕기)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52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영국의 한국홍보 이벤트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화요상설 국악공연 (동선본 통소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방목기별 음악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김영재 음악인생 40주년 기념연주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6 · 25 기념행사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26

세종악학개원 (~27)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전경희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영재아카데미 교수음악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주미의 (춤추려 간다) / 국립국악원 우연당
니르바나 실내악 공연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제10회 젊은 연극제) (~30)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27

프랑스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코리아 심포니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은숙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목요상설 국악공연 실내악단 (아름화) / 국립국악원 우연당
양갈순무용단 (2002 한 · 일 월드컵기념 행사) / 국립국악원 예약당
김호동의 춤 II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월드컵문화예술축전 (수원교사 리코더합주단)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28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송진미 귀국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베를린필 12첼리스트 초청공연 (~2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2 부천필신내악 페스티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발레 (돈키호테) (~7. 3)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한 · 일 공동연극제 (강자편 5월) (~29)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LDP 무용 정기공연 (~29)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백성기 작곡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연당
현대실내악과 가곡의 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월드컵문화예술축전 (베세토오페라단) (~29) / 경기도문화예술평소공연장

29

서울시장 이임식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박민정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동아무용 페스티벌 (~30)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모차르트 페스티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박규원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제23회 서울조각대전 (~7. 7) / 예술의전당 미술관 4, 5전시실
한일 Life Mask 2002 (~7. 7) / 예술의전당 미술관 4, 5전시실
토요상설 국악공연 (대추향) / 국립국악원 예약당
한국 베트남 평화예술제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완창판소리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30

도밍고와 친구들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이석호 귀국 비올라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서울내셔널심포니 제24회 정기연주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가세 박사의 초상

1990년 5월, 한 경매장에서 8,250만 달러라는 경이적인 가격에 팔린 작품 〈가세 박사의 초상〉은 반 고흐가 남긴 마지막 초상화이다. 이 책은 〈가세 박사의 초상〉을 소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에 얽힌 문화사와 정치·사회·경제적인 배경까지 뛰어난 분석력과 놀라운 글솜씨로 추적해 나간다.

신시아 살츠만 지음 / 강주원 옮김 / 예담 발행



필로시네마 혹은 영화의 친구들

이 책은 「필로시네마, 혹은 탐주의 철학에 관한 7편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1995년 출간했던 것에 새로운 글 〈와호장룡〉 〈동사서독〉 〈폴 몬티〉를 추가하여 증보한 것이다. 영화 속에서 철학을 읽고 철학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일종의 '종합'을 시도한 책이다.

이진경 지음 / 소명출판 발행



철학극장, 욕망하는 영화기계

이 책은 「필로시네마 혹은 영화의 친구들」과 함께 '영화로 철학하기' 혹은 '영화와 친구하기'의 또 다른 버전이다. 예술적인 영화를 품자해 해석하고, 난해한 철학을 세련되게 해설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을 실험의 장으로 변환하려는 것이다.

수유연구실 + 연구공간 '너머' 지음 / 소명출판 발행



세계도시 문화여행 가이드

세계 유명 도시를 격조 높게 돌아볼 수 있는 가이드북 「세계도시 문화여행 가이드」의 2차분인 7권 〈마드리드〉, 8권 〈암스테르담〉, 9권 〈샌프란시스코〉가 출간됐다. 기존에 이미 〈파리〉 〈뉴욕〉 〈런던〉 〈로마〉 〈베네치아〉 〈바르셀로나〉가 출간되었으며, 여행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을 선정, 전세계 11개국에서 동시 출간되었다.

갈리마르 편 / 컬처라인 발행



꿈꾸는 자작나무

이 사진집은 지은이가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에서 보낸 1년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원고지 450여 장을 웃도는 장문의 에세이와 70여 컷의 흑백사진이 아우러지는 가운데 정처한 마음의 풍경화를 펼쳐 보인다.

이대일 글·사진 / 아트북스 발행



책 읽는 소리

이 책은 독특한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 한문학자 정민 교수의 고전독서 에세이다. 모두 47편의 글로 구성되었으며, 옛글에서 떠오르는 옛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오롯이 되살리고 있다. 세상을 읽는 안목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독서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민 지음 / 마음산책 발행



책세상문고·우리시대

『세계화』와 『문명의 충돌』의 시각으로 역사 재편의 양상을 보여주는 『문명과 야만 -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엔블록과 동아시아 경제』, 『중국 간독시대, 물질과 사상이 만나다』, 그리고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비전향 장기수 - 0.5평에 갇힌 한반도』 총 5권이 출간되었다.

조현범·김용복·임형석·이성숙·최정기 지음 / 책세상 발행



태평천하

우리 소설사에서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일제 강점의 현실을 풍자를 통해 비판했던 채만식의 장편소설 『태평천하』가 발간되었다. 10대들을 위한 문학 교양서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은, 10대들이 채만식의 문학세계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작품해설과 어휘풀이 등을 수록하였다.

채만식 지음 / 문흥출판사 지음 / 청동거울 발행



우울과 몽상 - 에드거 앨런 포 소설 전집

〈검은 고양이〉 〈모르그 가의 살인〉 〈어서 가의 몰락〉 등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포의 단편소설 58편 전편을 작품 성향에 따라 환상·풍자·추리·공포 편으로 나누어 실고 있다. 작가 포의 문학세계 전모와 구속받지 않는 상상의 세계, 심리적 통찰, 첨예한 이성주의 정신을 한 눈에 들여다보게 한다.

에드거 앨런 포 지음 / 홍성영 옮김 / 하늘연못 발행



꽃그늘 아래

이 소설집은 현대문학상 수상작 〈고갯마루〉를 비롯하여 여러 문예지에 발표된 10편의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혜경의 작품은 우리 삶의 낮고 후미진 곳을 치밀하게 들춰내며 독자들을 고통스러운 진실로 차분하게 이끌어 가는 빼어난 솜씨를 보여줘 문학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혜경 지음 / (주)창작과비평사 발행



만월까지

『국제신문』 '1억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전복 전주 근방의 어느 두메를 배경으로 갑오경장기로부터 1920년대에 이르는 종살이 삼대의 얽히고설킨 기막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명주실로 짜낸 듯 섬세하면서도 결국엔 문장과 정치한 어휘 구사로 우리말을 생기 있게 되살려냈다.

류영국 지음 / (주)실천문학 발행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저자 홍신자는 이 책을 통해 자유로운 삶이란 끈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오랜 세월 자신이 자유를 찾아 헤메면서 깨닫게 된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과감없이 공개하는 그녀의 내추럴 라이프 메시지다.

홍신자 지음 / 명진출판 발행



순수와 열정의 비즈니스

저자 토마스 애서커는 기업경영의 마인드와 브랜드를 이제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자고 한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열정과 순수를 되찾아 '신나는 일터'를, '최고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자기만의 경쟁력을 확고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애서커 지음 / 박성희 옮김 / 예지 발행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해인 수녀의 많은 글들 중에서 사색과 묵상을 통해 깨달은 자연과 일상에 대한 고갱이만 가려 뽑았다. 풋풋한 풀냄새와 꽃향기가 물씬 배어나는 이번 산문집에는 세상을 향한 수녀의 따뜻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해인 지음 / 섀터 발행



문화동네 시집 61 · 62 · 63

'지금, 여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얘기하는 이희중 시인의 두번째 시집 『참 오래 쓴 가위』와 주로 사물과 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순현의 『내 몸이 유적이다』가 출간되었다.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그린 전남진의 『나는 공금하다』도 있다.

이희중 · 이순현 · 전남진 지음 / 문학동네 발행



학교에 간 토끼 마뱀이

이 책에는 마뱀이의 아빠 '헌털', 엄마 '갯고랑댁', 마뱀이 동생 '깜장이' 그리고 마뱀이, 마뱀이 친구인 애벌레 등이 등장한다. 어느 시골학교에서 살고 있는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이들이 펼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재미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소중애 지음 / 전병준 그림 / (주)예림당 발행



할머니 손바닥 주소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들이 넷이나 되는 할머니도 치매로 인해 양로원에 가게 되고 영영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가 손바닥이라도 주소를 적어둔다. '사람이 늙으면 모두 할머니처럼 되는 걸까?' 하는 물음에서 많은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대현 지음 / 허정숙 그림 / (주)예림당 발행



별자리 신화

까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신화들을 재미있게 만화로 표현해 낸 책이다. 자신이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별자리도 찾아보고, 상상력이 주는 즐거움과 그리스 신화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복영 글 · 만화 / (주)예림당 발행



후박나무 우리 집

올해 제6회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창작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 책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남녀차별의 문제점과 남녀가 친구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산뜻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고은명 지음 / 김윤주 그림 / 창작과비평사 발행



꽃씨 안이 공금해

『꽃씨 안이 공금해』는 자연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36편의 동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제로 엮었다.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구성된 파스텔 톤의 그림이 동시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이들이 노래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유경한 지음 / 박선민 그림 / 국민서관 발행



산신당의 비밀

『산신당의 비밀』은 어른들의 무심함 속에서 도굴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산신당을 배경삼아, 위기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낸 용감한 아이들의 이야기다.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동화다.

박민호 지음 / 조민경 그림 / 국민서관 발행



들고양이 노이

비닷가 마을의 웅기집에서 태어난 세 마리의 고양이 자매 얼이, 노이, 겹이의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의 고양이의 삶을 통해 사랑이 부족한 요즘의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가족의 소중함과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옥애 지음 / 한현주 그림 / 청동거울 발행



이건 꿈일 거야

이 책은 <영주네 이야기>와 <순미네 이야기>로 나눠져 영주와 순미를 중심으로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책장을 덮는 순간, 따뜻한 시선으로 항상 가족을 바라보고 감싸안은 엄마의 사랑이 수채화 그림 같은 여운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이상배 지음 / 김재홍 그림 / 계림북스쿨 발행



손바닥에 쓴 글씨

이 책은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억울하게 죽어간 평범한 사람들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생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준다. 이를 통해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게 하는 동화이다.

김옥 지음 / 이은현 그림 / 창작과비평사 발행



창비아동문고 200·201

1977년 2월부터 발간해 온 '창비아동문고'가 200호 「또야 너구리의 심부름」과 201호 「이상한 알약」을 내놓았다. 이번 200호와 201호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로·신진 작가(강정규·권정생·김중미·안미란·이가을 등)들의 신작동화를 받아 기념동화선집으로 꾸민 것이다.

창작과비평사 발행



토마스는 누구 닮았을까?

늘 누구와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토마스는 너무 속상해한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대신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토마스를 토마스로 보게 만드는 과정이 재미나게 그려지고 있다.

그라시엘라 몬테스 지음 / 구스티 그림 / 권미선 옮김 / 도서출판 세운교육 발행



약초 할아버지와 골짜기 친구들

「나쁜 어린이 표」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널리 사랑받은 작가 황선미의 최근작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소화하기에 어려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형상화하여 저학년 동화의 지평을 넓힌 작품이다. 네 가지 이야기가 각각 독립적이고 완결성을 갖춘 단편이며, 한 편의 장편동화를 이루고 있다.

황선미 지음 / 김세현 그림 / (주)사계절출판사 발행



땡땡의 모험

모두 24권으로 이루어진 「땡땡의 모험」 중에서 1권 〈검은 섬〉, 2권 〈유니콘 호의 비밀〉, 3권 〈라캄의 보물〉이 발간되었다.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하며 재치 넘치는 소년 기자 땡땡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갖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르제 지음·그림 / 류진현·이영목 옮김 / 수출출판사 발행



늑대의 돼지꿈

놓쳐버린 새끼 돼지를 찾아나서는 늑대의 이야기로 욕심 많고 영동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늑대의 캐릭터가 흥미롭다. 늑대의 마지막 결정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여 어린이와 부모에게 좋은 토론거리가 될 수 있다.

기무라 유이치 지음 / 다시마 세이조 그림 / 박이엣 옮김 / 현암사 발행



우체통에서 나온 나비 떼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읽다보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말고도 여러 동식물들이 각자의 세계에서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린이들에게 소중히 아끼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정임조 지음·그림 두루마리 그림 / 엄지검지 발행



슬래와 품금 소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가슴아픈 꽃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를 세월이 흘러 만나게 되고, 그 동안과 그후 고달픔과 고통으로 살아온 꽃네를 통해 '어머니'의 애절한 존재를 느끼게 한다.

강원희 지음 / 이관수 그림 / 세상모든책 발행



토토의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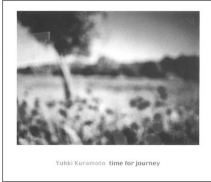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800만 부라는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한 「창가의 토토」, 국내에 두번째로 소개되는 이 책 역시 '어린이'에 관한 테마로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다. 어린이의 마음과 생각 그 깊은 곳을 탐색하는 동시에,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에세이들로 채워져 있다.

구로아나기 테츠코 지음 / 이와사키 치히로 그림 / 권남희 옮김 / 다우출판사 발행

- ▶(만화로 보는 명작) 오페라의 유령 / 가스통 르루 지음 / 문학세계사 발행 / 8,200원
- ▶김성곤의 영화기행 / 김성곤 지음 / 효형출판 발행 / 9,000원
- ▶또 하나의 재즈 에세이 /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까치 발행 / 10,000원
- ▶건축을 향하여 / 르 코르뷔지에 지음 / 동녘 발행 / 18,000원
- ▶이야기 중국문화사(상·하) / 지세화 편저 / 일빛 발행 / 13,000원
- ▶손맛 땀 우리 음식 이야기 / 조정강 지음 / 웅진닷컴 발행 / 15,000원
- ▶우리말의 수수께끼 / 박영준 외 지음 / 김영사 발행 / 10,900원
- ▶헬레니즘 세계 / F W 월벡크 지음 / 아카넷 발행 / 18,000원
- ▶드 보통의 삶의 철학산책 / 알랭 드 보통 지음 / 생각의나무 발행 / 17,000원

※ 이 난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꾸며집니다.

- ▶경이로운 차이들 / 류보선 지음 / 문학동네 발행 / 12,000원
- ▶너울의 상처 / 윤형복 지음 / 정론출판사 발행 / 7,500원
- ▶시간, 욕망 그리고 공포 / 알랭 코르뱅 지음 / 문문선 발행 / 18,000원
- ▶어느 책 읽는 사람의 이력서 / 마틴 발저 지음 / 미래의창 발행 / 9,000원
- ▶해비늘 벗기기 / 류재만 지음 / 세계사 발행 / 5,500원
- ▶피안대소 / 범대순 지음 / 전남대출판부 발행 / 5,000원
- ▶하늘꽃 / 이인화 지음 / 동방미디어 발행 / 8,800원
- ▶인생 / 앤 타일러 지음 / 공경희 옮김 / 창해 발행 / 9,000원
- ▶코끼리를 찾아서 / 조경란 지음 / 문학과지성사 발행 / 8,500원
- ▶바다의 아코디언 / 김명인 지음 / 문학과지성사 발행 / 5,000원



Time for Journey(여행의 나날들) / C & L MUSIC

동양적 서정미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음악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의 일곱번째 앨범이 발매됐다. 유키 구라모토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흥을 바탕으로 작곡한 14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번 앨범에서 그는 특유의 음악적 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작품들에 비해 '화사함' '클래시컬한 느낌'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수록곡 중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감흥을 담은 〈향수 어린 애수(Nostalgic Affection)〉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두 곡이 수록되어 있다.



김인혜가 부르는 임금수 가곡집 〈강 건너 봄이 오듯〉 / 웅진코웨이개발(주)

최정상 기량으로 국내외 해외에 그 음악세계를 유감없이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인혜와 〈한국의 가곡〉 〈한국예술가곡집〉 〈조수미 독창곡집〉 등 20여 음반에 곡을 수록한 국내 정상의 작곡가 임금수가 만났다.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비롯하여 〈주의 옷자락〉 〈초혼〉 〈그대 창 밖에서〉 등 총 12곡의 편안하고 감미로운 곡이 수록되었다.

선악과 작곡 두 정상의 만남이 안겨주는 장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일륜의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화개십리)〉 / 서울음반

중견 국악인 중 신세대적인 이미지로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일륜의 네번째 앨범이 나왔다. 〈농현〉 〈새산조〉 〈노래하는 가야금〉에 이은 이번 음반은 1984년에 직접 성금연으로부터 전수받은 그가 성금연의 음반과 성금연이 녹음한 자료를 통하여 재구성한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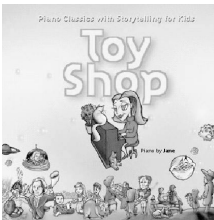
이번 앨범은 산조 한 바탕을 온전히 연주한 것으로, 짜집기를 한 다른 음반과는 느낌이 다른 음반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향토민요 전국여행 1, 2집 / 서울음반

이 음반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음반이 공동으로 기획한 학교 교육용 향토민요 음반이다. 국악교육이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요즘 이 음반은 국악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향토민요들 중에서 교육용으로 적합한 50곡을 선정하고 표준악보를 만들었다. 이 앨범에 선정된 민요들을 편곡된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방법, 장구나 북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방법, 반주 없이 편곡된 상태로 부르는 방법, 반주 없이 원형대로 부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녹음을 하였다.



Toy Shop / 아이드림미디어

이 음반은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제인 트로젠의 피아노 선율과 김슬기 어린이의 구연동화로 꾸며져 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비제, 그리그 등 위대한 음악가들의 〈왕벌의 비행〉 〈진주조개잡이〉 〈터키 행진곡〉 등의 친숙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SBS 〈신동천하〉에서 구연동화 신동으로 출연했던 김슬기 어린이의 구연동화도 색다르게 구성되었다. 위대한 음악가들의 삶과 에피소드들을 딱딱하고 지루한 위인전에 나오는 해설이 아닌, 귀에 쏙 들어오는 구연동화로 음악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삽화가 그려진 32페이지의 컬러 해설서도 음악을 보다 재미있게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e Best of Three Tenors / UNIVERSAL

세계적인 스리 테너 카레라스·파바로티·도밍고의 세 번의 라이브 콘서트(로마, LA, 파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을 모아 한 장으로 집약한 스리 테너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앨범'이다. 10년 넘게 월드컵과 함께 공연을 해온 스리 테너의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맞춰 발매되는 앨범으로 기존의 앨범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앨범은 세계인들의 요구로 스리 테너가 함께 노래한 유일한 공식 앨범이라는 것이다. 모든 트랙인 아리아들과 노래들은 스리 테너가 함께 하였고, 여기에 관중들의 온몸으로 전하는 환호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 앨범에는 스리 테너 콘서트의 백미였던 메들리들을 모두 수록해 기억에 남는 최고의 감동을 전하고 있어, 최고 중의 최고라는 찬사가 어울리는 앨범이다.



Spanish Heart / 굿인터내셔널

6월에 내한하는 살타첼로 그룹의 리더인 독일 피아니스트 페터 신들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금호현악4중주단의 멤버이자 오벌린음대 교수로, 솔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년간 스페인 기타를 배운 뒤 국내외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장승호가 함께 흰눈이 소복이 쌓인 강원도 원주 문막의 한적한 시골 교회에서 녹음한 음반이다.

〈로망스〉〈알함브라의 추억〉〈아스투리아스〉〈안달루시아〉〈스페니시 하트〉 등을 포함 14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가 엮어내는 영감 넘치는 연주와 정열의 스페인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WORLD CUP 2002 / 굿인터내셔널

2002 한일 월드컵 때 울려 퍼졌 본선 진출 32개 국가를 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모두 담은 특별한 앨범이 나왔다. 경기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으면서도 자칫 흘려버리기 쉬운 각국의 국가들을 유수 깊은 프랑스 공식 군악대인 '공화국 근위대의 음악'이 연주하였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물론 일본 국가 〈기미가요〉,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 브라질의 〈고요한 이피랑가의 강변에〉 등이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

이번 앨범은 스포츠와 음악을 통한 세계의 화합이란 메시지의 전달에도 한몫할 것이다.



Classic Kathleen Battle / SONY

“빛나는 목소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문,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가운데 하나” (『워싱턴 포스트』지)인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의 베스트 앨범이 나왔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로크 듀엣〉〈엔젤스 글로리〉〈소우 메니스타즈〉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레퍼토리가 수록되어 있다.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헨델의 〈Let the Bright Seraphim〉 등 18곡이다.



Let's Bossa Nova / BMG

이 음반은 BMG에서 발매하고 있는 'focus on...' 시리즈 중의 하나다. 보사노바는 새로운 경향을 뜻하는 단어로, 아프리카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삼바에 미국의 쿨 재즈적인 형식이 융화된 음악이다.

안토니우 가를로스 조빙, 루이즈 본파, 아스투르도 질베르투, 갈 코스타 등 익히 알려진 보사노바의 스타들은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조니 알프, 탕바 트리온, 하울 지 소우자, 밀톤 바나나, 주앙 도나투 등 거장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다. 〈Samba De Orfeu〉〈Desafinado〉〈Once I Loved〉 등 19개의 곡에서 삼바처럼 뜨겁고 재즈처럼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Focus on Brazilian Divas / BMG

'focus on...' 시리즈 중의 하나다.

브라질에서는 1930년대부터 라디오와 음악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특히 격렬한 삼바 리듬이 좀더 순화되고 멜로디와 하모니를 강조하는 삼바 칸사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수가 주목받는 시대가 열렸다. 1940년대에는 브라질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카르멘 미란다, 클라라 누네스와 같은 여성 가수들이 브라질에서 '디바'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14명의 디바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브라질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Focus on Bossa Nova / BMG

'focus on...' 시리즈 중의 하나다.

알라지 코스타가 부르는 첫곡 〈Minha De Saudade〉는 1955년 기타리스트 루이스 본파가 발표한 앨범에서 사이드 맨으로 참가한 아코디언 연주자 조앙 도나투가 처음으로 녹음한 곡이다. 둘째 곡은 최 코리아의 〈리턴 투 포에버〉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플로라 류림의 1964년 데뷔 앨범에 수록된 아름다운 발라드 스타일의 보사노바 곡이다.

이외에도 브라질을 대표하는 트롬본 연주자 라울 지 수사의 〈A Vontade Mesmo〉 등 총 15곡이 수록되었다.



쇼팽,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 예당엔터테인먼트

타티아나 니콜라예바 이후 러시아 여류 피아노계를 대표하는 빅토리아 포스트니코바의 실황음반이다. 지휘자 로제스트 벤스키의 부인이기도 한 포스트니코바는 전주곡 분야의 양대 산맥인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걸작을 불꽃같은 정열과 에너지에다 러시아 로맨티시즘을 가미하여 최고의 실황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거쉰 피아노 협주곡, 스트라빈스키 에보니 협주곡 / 예당엔터테인먼트

미국인이 쓴 가장 탁월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평가받는 거쉰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로제스트 벤스키의 지휘와 베르만 이 연주하는 거쉰의 피아노 협주곡은 흥미진진한 조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소비에트의 가장 대표적인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레프 미하일로프의 〈에보니 협주곡〉에서 재즈적 감수성까지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베토벤 교향곡 7번 / 예당엔터테인먼트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유독 오케스트라적 색채가 풍부하고 특히 서정적인 슬라브 선율이 아름다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유태해석판이다. 1990년 이작 필만과 주빈 메타의 실황음반으로,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필만과 메타의 완벽한 협연은 감동적인 무대에 뒤이는 열광하는 청중들에서 확연히 느껴진다.



니콜라이 페트로프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품집 / 예당엔터테인먼트

모스크바 출신으로 현재 러시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이 페트로프의 소품집은 프랑스 피아노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라모, 뒤카, 비제, 생상, 라벨의 음악이 담겨 있는 이 음반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던 프랑스의 피아노 음악이 얼마나 멋진가를 실증하고 있다. 1984년 녹음으로 곡들에 대해 철저히 연구한 니콜라이 페트로프 희심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코렐리 콘체르토 그로소 Op. 6 / 예당엔터테인먼트

풍부한 상상력으로 대담한 협주양식을 보여준 바로크 기악곡의 기념비적 걸작 코렐리 콘체르토 그로소. 헨델의 동명작이 더 알려져 있지만 코렐리의 작품은 이 양식의 발달과정에서 최초로 나온 명작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선하고 흥에 넘치는 표현력, 달콤한 음색, 잔잔하게 육박해 오는 리듬 등 코렐리 작품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다.



브람스,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 예당엔터테인먼트

명쾌한 해석으로 널리 알려진 러시아 음악의 정통 지휘자인 키릴 콘드라신과 20세기 바이올리니스트의 최고봉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협연이 만들어낸 명연 가운데 하나이다. 우아함과 기품이 넘치는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브람스와 드보르작의 협주곡을 낭만주의 최고의 작품으로 해석해 내고 있다.

한국 현대문학의 맥 이어온 지조의 시인 조지훈

1920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하여 서정주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함으로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국 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 준 큰 시인이다.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 「역사 앞에서」 「여운」 등 그가 남긴 시집들은 모두 민족어의 보석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승무> <낙화> <고사>와 같은 시들은 지금도 널리 읊어지고 있는 민족시의 명작들이다. 전통적인 운율과 선(禪)의 미학을 매우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조지훈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누구도 훼손하지 못할 만큼 확고부동하다.

매천 황현과 만해 한용운을 이어 조지훈은 지조를 묵숨처럼 중히 여기는 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일송 김동삼의 시신을 만해가 거두어 장례를 치를 때 심우장에 참례한 것이 열일곱(1937년)이었으니 조지훈이 뜻을 확립한 시기가 얼마나 일렀던가를 알 수 있다.

조지훈은 민속학과 역사학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문화사를 스스로 자신의 전공이라고 여기었다. 조부 조인석과 부친 조현영으로부터 한학과 절의를 배워 체득하였고 해화전문과 월정사에서 익힌 불경과 참선 또한 평생토록 연찬하였다. 여기에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원고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국어학 지식이 더해져서 형성된 조지훈의 학문적 바탕은 현대교육만 받은 사람들로서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넓고 깊었다. 광복이 되자 10월에 한글학회 국어교본 편찬원이 되고 11월에 진단학회 국사교본 편찬원이 되어 우리 손

으로 된 최초의 국어교과서와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였고 그 이후 1968년 기관지 확장으로 작고하기까지 조지훈이 저술한 「멋의 연구」 「한국문화사서설」 「한국민족운동사」 「시의 원리」 등의 저서는 한국학 연구의 영원한 명저가 되었다.



조지훈(趙芝薰: 1920~1968)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 수필가, 한국학 연구가. 민속학과 민족운동사에 공헌. 한국문화사를 최초로 저술. 주요 저서 「조지훈 시선」 「한국민족운동사」 등.

조지훈은 진리와 허위, 정의와 불의를 준엄하게 판별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지조론」에 나타나는 추상같은 질책은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터뜨린 양심의 절규였다. 일찍이 오대산 월정사 외전강사 시절 조지훈은 일제가 싱가포르 함락을 축하하는 행렬을 주자에게 강요한다는 말을 듣고 종일 통음하다 피를 토한 적도 있었다. 민족문화와 민주정치를 살리기 위하여 조지훈은 한 시대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해 발언에 대해

이는 학자와 학생과 기자를 버리고 정치를 하려 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한 조지훈은 그로 인해 정교수로 물렸고 늘 사직서를 가지고 다녔다.

조지훈은 근면하면서 여유 있고 정직하면서 관대하고 근엄 하면서 소탈한 현대의 선비였다. 매천이 절명의 순간에도 “창공을 비추는 촛불”로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였듯이 조지훈은 나라 잃은 시대에도 “태초에 멋이 있었다”는 신념을 지니고 초연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 조지훈에게 멋은 저항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녀야 할 삶의 척도였다. 조지훈은 호탕한 멋과 준엄한 원칙 위에 재능과 교양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대인이었다. ☆

이 글은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이달의 문화인물」 소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